

서평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편람(Enchridion)”

이성훈(철학과 석사)

우리 인식과 생활의 바탕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세기에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도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에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변화의 시대마다 제기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지혜롭게 대처해 왔으며 그 이면에는 기독교 교리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다름 아닌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 354-430)의 저작이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편람(便覽)』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생애 말년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설명해 달라는 한 평신도의 요청을 받고 쓴 책이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 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한 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기 구별되지만 상호 의존적임을 심리 분석을 통해 밝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신경의 순서에 따라 기독교 교리 전체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해명한다. 교의 신학의 첫 열매로서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작업에서 그는 선과 악의 문제, 의지의 자유 문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난해한 가르침, 삼위 일체론 등을 성경 전체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다룸으로써 당시 교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들에 종지부를 찍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은 교의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의 실제 생활에 속한 문제에 이른다. 예배와 세례 등의 의식과 기도, 자선 등 교회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형식과 의미 사이의 묘한

긴장을 성경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으며, 육체의 부활 문제를 다루면서 제기되는 태아의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오늘날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기준을 찾아낼 수 있다.

소망에 대해서는 주의 기도를 간략히 해설하면서 다루고, 사랑은 기독교 가르침의 완성으로서 성령의 은사의 관점에서 강조되지만 그 분량은 믿음에 대한 해설의 심분의 일에 불과하다. 믿음에 대한 해설이 가르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소망과 사랑에 대한 해설은 그 가르침과 각 개인을 연결시키는 원리와 그렇게 연결된 삶의 모습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구성에서 우리는 기독교 가르침의 시작은 호기심이나 이해가 아닌 믿음이며, 그 가르침의 완성은 지식이 아니라 가르침의 실천을 통한 개인의 변화에 있다는 점을 보이려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깔끔하고 세련된 글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산만하고 역동적인 글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의 단어들을 개념화시키고, 성경 구절이 가진 의미와 어려움을 전체적 조감 아래에서 해설하는 그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혼란한 시대를 헤쳐 나갈 공통적 근거를 위한 본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시대에 기독교만이 취할 수 있는 고유한 대응이며, 이 일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편람』이 가지는 가치는 적지 않다.

(심이석 옮김, 신국문 요약/신앙 핸드북,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책소개

무의미로부터의 자유

-키아케고어의 역사적 인간학
-강학철 지음 (동명사)

키아케고어의 실존사상을 현행의 포스트모던의 시대감각을 통해 재해석한 강학철교수의 '무의미로부터의 자유'는 부제가 밝히는 대로 키아케고어의 역사적 인간학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근 20년간에 걸친 저자의 문제의식에 따른 천착과 연구결과로 얻어진 10편의 학술 논문을 일관성과 연속성에 근거해서 재구성한 것이 강교수의 저서이기에 키아케고어의 애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교양인과 종교인들에게 참신한 사상적 안목과 진리에의 주제적 감격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다. 제 1부는 인간의 존재를 관계적 존재, 단독적 존재, 제자적 존재로 범주화 한다.

제 2부에서는 반복의 개념을 희랍정신, 유대교정신, 그리스도교정신의 시간해석에 따라 분석하고 키아케고어의 독창적 개념인 신앙의 동시성 개념과 필연적 관계를 명확하고 판명하게 설명해 준다.

제 3, 4, 5부에서는 키아케고어의 실존사상의 발상의 계기가 될 실존변증법의 허무주의 극복의 과정과 정신사적 인간소외의 인식론 접근법을 검증함으로써 참된 신앙과 사이버신앙의 실존현상을 분석한다.

제 6부에서는 <단독자의 변증법>을 통해 강교수는 그동안 단독자의 개념에 따라붙은 극단의 반사회적, 반역사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철저한 원전적인 단독자의 해석을 통해 실존변증법의 역사참여적 계기인 단독자의 사회개혁적인 이웃사람발견과 인간각자의 이웃사람되기운동의 인권공동체형성 가능성을 밝혀준 것은 새로운 세기의 공동체사회건설과 사회개혁운동에 키아케고어가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본 저서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또한 단독자의 역사 및 사회 정치적 참여 가능성 해설한 것이 나머지 제 7, 8, 9, 10부의 내용들이다.

따라서 제 1부에서 6부까지가 실존적 인간의 현실초월운동이라 한다면 제 7부에서 제10부까지는 실존적 인간이 현실참여를 위한 하강운동의 변증법적 종합의 인간성숙을 달성하는 과정이라 파악한다해도 틀리지 않겠다. 결국 키아케고어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개혁과 역사적개혁운동은 실존변증법의 동인이며 추진력이며 역사적 인간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음을 강교수는 사회적 실존, 정치적 실존 등의 개념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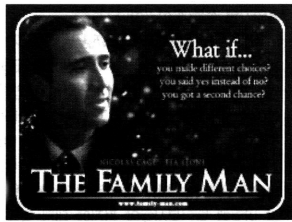
책소개



영화평

The Family Man

김지(법학부00)



만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할 정도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겪은 후 책은 다시 크리스마스 아침, 뉴욕의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고 역시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케이트를 만나서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

보디시퍼 영화의 구성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어떤 기억에 의해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건 역시 영화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비현실적인 영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상대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책이 지닌 행복의 척도가 물질적인 성공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는 관점 역시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 자문해보게 되기 때문이다.

감독은 변화된 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가족의 사랑을 깨달은 책이 예전의 책보다 더 바람직한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영화 속에서 끊임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의 그러한 메시지에 나는 쉽게 동조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세상적인 가치들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이놓을 수 있다고 쉽게 다짐해왔던 나였는데... 가족의 사랑을 깨달은 후 뉴욕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 애쓰던 책이 그다지 현명해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성공과 일류 지향적인 교육을 받아온 수많은 사람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인제부터인가 내 가치관의 중심에는 물질적인 성공과 객관적인 지표가 놓이게 된 것이다.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삶은 썩 내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 자신을 '객관적인 지표가 갖춰진 삶이 현실적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구체적인 변명으로 정당화하게 된다. 아직은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삶의 객관적인 지표에 가치를 두는 것인지도 모른다. 즉, 스스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자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또는 객관적인 지표의 무가치성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빈부의 차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 말이다. 너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주님이 이런 차이를 허락하셨다면, 이러한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닐까. 자녀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키우지만 그 다른 모습에 별로 개의치 않는 부모처럼...

이번 영화는 그 비현실적인 구성 때문에 관객의 가치관 자체를 변화시킬 정도의 영향력까지는 없었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갖게 하는 영화였다.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VERITAS LUX MEA

이달의 성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예수대행진 은혜가운데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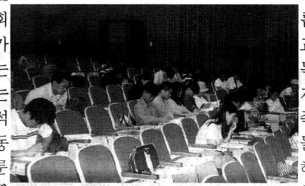
5월 23일 120명의 기독교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대행진'이 진행되었다. 120명의 기독교학생들은 아크로 광장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들을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에는 총 4개조로 단대를 묶어 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진하면서 캠퍼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찬양을 드렸고, 각 단대의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행진을 마친 모든 지체들이 버들골에 모여서 함께 김밥과 수박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에서 5.18 시국 기도회가 열린다

지난 5월 18일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맹회(이하 한기연)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울대학교 기독교인연합이 후원한 5.18 시국기도회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8동 102호에서 열렸다. 5.18 2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시국기도회는 지난 4월10일 부평 대우차 사태가 5.18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은 5.18"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6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는 5.18 영상물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폭력진압 사태를 다룬 영상물의 상영, 고지훈 선교사의 메

시지(사무엘하 21장),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도회는 한국교회와 역사적인 죄악들과 그런 죄악됨에 대한 회개없음을 아파하며 회개하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자리였다. 고지훈 선교사는 독일 통일을 갈망했던 동독 성니콜라스 교회의 "월요일과 기도회"를 예로 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계속되어야 함을 피력하면서, 2학기부터 매주 기도회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제3회 외국인 교수, 유학생 초청의 밤

지난 5월 22일(화) 오후 5시 30분 서울대학교 주최로 서울대의 외국인 교수 유학생 초청의 밤 행사가 열렸다. 현재 4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오신 교수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120여명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 만찬과 더불어 국악과 연주와 특송, 그리고 서울대 찬양선교단 지체들의 공연이 있었으며 외국인들의 노래솜씨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복음 메시지(주우진 교수, 경영대)를 통해 외국인들이 성경공부를 신청하고 결신하는 기회도 가졌다. 여러 과와 단대 학생들이 자원해서 참

여한 이 행사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의 통로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가 지난 5월 8일(화) 아침 7시 30분에 호암교수회관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매우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전부 30명(본부보직교수 5, 학장 3, 교수14, 서기원 1, 대학원생 1, 찬양선교단 6 명) 참석하여 박성현 자연대학장의 대표기도와 이종용 목사의 "부흥과 개혁" (이사야서 1:2,18)이라는 주제의 메시지가 있었고 서울대 찬양선교단의 아름다운 특송과 남승호 교수(언어학과)의 인도로 합심하여 서울대를 위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참석자는 유대 민족의 예스더양후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부림절이 시작될 것처럼, 우리를 서울

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서울대 캠퍼스에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앞으로 조찬기도회는 매 학기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회 주최로 열기로 하였다.



종강 예배

6월 4일(월) 전병목목사(삼일교회)를 모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라는 주제로 종강예배가 열렸다. 준비 기도회가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있었다. 이를 위해 정경선 간사(서울대학교회), 김종탁 간사(CCC), 정희원 간사(JOY), 이정간 사(한사랑), 임일승 간사(ESF)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찬양은 김진석 형제와 구민범 형제가 기도인도는 박종경 자매와 이지윤 자매가 섬겨 주었다. 기도로 캠퍼스를 정복합니다!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원오 교수(물리학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16편 8절)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겸손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곧 나를 낮추는 겸손을 뜻하는데 이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갖추어야 할 성품인 동시에 영적인 기본자세임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럼 왜 겸손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약4:6, 벰전5:5) 둘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10:17) 셋째, 나를 높입니다. (벰전5:6, 약4:6)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씀이 있는데, (잠22: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물은 곧 물권이요 영광은 인권 그리고 생명은 영권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은 13년동안 이국땅에서 종살이와 죄인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국 무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창42:18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연합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잠2:1~5에서 말하기를 은을 구하는 것같이, 김추인 보배를 찾는 것같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된다고 말합니다.

어린시절 형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회초리를 드시며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시는 아버님으로 인해 눈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주여...'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 84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대로 유학을 가서 지도교수님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던 당시 원하는 지도교수님의 맘에 들지 위해 무던히 학과시험을 잘 보기 위해 준비했지만 예상치 않은 일들로 낙심하는 가운데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때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후부터는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도전했을 때 결국 제가 원하는 교수님을 제 때에 지도교수님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겸손히 그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셨습니다. 8절 후반에 보면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 우편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뜻을 따라 앞을 보고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기를 원하시고(딤후4:5), 항상 기뻐하고 성직 말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살5:16~18) 또한 성령충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엡5:18) 대학교 2학년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요7:17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선악과로 유혹했던 사단의 전략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 종종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생각과 관심을 얽매기에 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을 보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의 겸손과 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 분이 내 우편에 계심을 알고 믿음의 결실으로 앞을 보고 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담대히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의 뜻을 이루길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캠퍼스 땅에서 겸손히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또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자. 려

- 2 이달의 말씀 / 교회의 교육적 사명 · 박영범 목사
- 3 과실을 맺는 나무 / 김혁
- 예수대행진을 마치고 / 이종현
- 4 원호택 은퇴교수 인터뷰
- 5 밀알선교단 소개
- 사회대 기독교인모임소개
- 6 특집, 설문을 통해 본 서울대 기독교인 활동
- 그리스도의 비전 / 김지희
- 7 이제그만 '핵심'을 벗어나서 / 조민수
- 문익환, 마틴루터 킹 목사
- 8 서평/이성훈 영화평/김지 책소개/무의미로부터의 자유

이달의 말씀

교회의 교육적 사명

마태복음 28:18-20
박영범 목사

언젠가 TV에서 청소년 가출 문제를 다룬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가출이 심각한 상태라며, 그 가출 동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가정, 결혼 가정의 자녀가 우발적으로, 단독으로 가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맞벌이 부부나 자녀 관리가 소홀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답답해서, 야단맞은 데 반발해서, 욕구 불만이 쌓여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쉽게 큰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한 15세 소녀가 "왜 가출했느냐"는 질문에, "공부하기 싫어서 나왔다. 엄마 잔소리까지 지겨워서 나왔다. 나는 학교가 싫다. 집이 싫다. 부모가 싫다. 공부가 싫다. 나는 친구

종교가 기독교인 아이들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으며, 교회 교육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는 그 구조적 결함에서 온 것입니다. 구조적 결함은 다음의 네 가지 요인에서, 그것이 수십 년 누적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1)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와 그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 신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 교회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2) 더욱 어려워진 신세대 교육에 교회가 힘을 쏟지 않았다는 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일했다는 점. (3) 신세대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헌신할 훈련된 지도자들을 교회가 길러내지 못했다는 점, 그 전문가들이 전문적, 장기적으로 사역할 여건과 구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4) '주일' 학교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 대학 입시에 강박적으로 쫓기는 상황 속에서, 능동적인 교회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지금까지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사회의 교육적 상황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 교육, 학교 공교육, 교회 교육, 이 세 축이 모두 급변하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샌가 그 기반이 심각하게 허물어져 온 것을 우리는 현재 뼈저리게 경험

신앙낭주

과실을 맺는 나무

김 혁 (노어노문학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15:16)

나는 증조 할머니 때부터 4대째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이다. 지금까지 별로 말씀 없이 살아왔던 만큼 신앙생활 또한 그다지 기록 없이 이어져 왔다. 물론, 1학년 때 잠깐 방향의 시기를 거쳤지만 그렇다고 주일에 예배를 빠뜨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1학년 여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나는 그 후 몇 년 동안 등락을 거듭하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뭔가가 부족한 듯했다. TV 광고에 나오는 정 모 군이 항상 2%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스물 몇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말씀과 기도에 비해

전도 부분이 턱없이 모자랐다. 정말 2%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군가를 권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것은 서너 번 정도이고,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통해 이십 몇 년간을 믿지는 장사를 하신 것이다. 이런 나의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을 무렵, 같은 선교단체에 있는 자매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보지 않겠냐고 제의해 왔고, 나는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처음 교제를 받자마자 대충 복음 제시하는 법을 훑어 본 다음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일 전도 캠프에서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전도대상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 이거 서비스예요." 그냥 녹차만 가져다 줬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탄환도 장전하지 않고 그냥 총만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는 1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씩 강의를 듣고 나의 훈련자(선

생)와 함께 복음제시 실습을 하면서 복음전도자로서 자신을 체계적으로 무장시켜 나갔다.

전도폭발 훈련의 강점은 전도대상자와 처음 접촉하는 방법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결심한 사람들을 지역교회에 연결시켜 양육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복음전도자로서 완전 무장을 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탁월한 것은 일방적인 복음제시가 아니라 항상 듣는 이의 동의를 구하고 전도대상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격적인 복음제시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 학기가 다 가고 이제 어느덧 종강이 다가왔다. 쉽지 않은 많은 과정이었지만, 전도폭발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은 이제 전도가 두렵지 않다는 것이다. 때로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나를 위로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또한 캠퍼스와 과 후배들과 내 주위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소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바울처럼, 항상 과실이 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대행진을 마치며

이종현(서울대기독교인연합대표)

이번 예수 대행진은 '회복!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이라는 주제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 하라. 생기에게 대언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 : 9~10)는 말씀을 의지하며 준비하였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믿음을 지켜 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서울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120명 정도가 함께 아크로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서울대 캠퍼스의 주인이심을 선포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이 캠퍼스의 죄악들을 회개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정직, 우상숭배, 음란함의 죄악들을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

였다. 예배에 이어서, 각 단대를 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캠퍼스의 주인이시고, 각 단대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했다. 또한 각 단대의 대표가 나와서, 각 단대의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진을 마친 후에는 함께 버들골



에 모여서, 예수 대행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렸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예수 대행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캠퍼스를 어떻게 변화 시키실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무하셨을 것이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셨을 것이다. '예수 대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 대

행진을 통해 가졌던 소망들을 아직도 품고 있다. 서울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기로 차고 넘치는 소망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 이 땅을 정복해 가는 소망들이다.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5월 14일부터 예수 대행진을 위한 중보 기도회가 매일 아침 8시 학생회관 302호에서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 교수님과 각 단대 대표들, 캠퍼스를 품기 소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앉아 말씀을 나누며 정말 캠퍼스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서기연 룸에서 동글게 모여앉아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랬을까? 안 그래도 좁은 서기연 방이 그 날은 더 좁게 느껴졌던 것 같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축제 기간 중 있을 예수 대행진을 준비하는 기도회였던 만큼 캠퍼스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간절했다. 이 시간들에 드러진 기도를 통해 이 캠퍼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2001 여름단기 선교 지원자 모집

지난 여름과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외로(일본, 카자흐스탄, 태국, 캄보디아, 중국)과 국내로(청주2, 전주, 대전, 진주, 포항, 대구) 나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더 체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의 연합을 경험하였습니다. 96년부터 불이 불기 시작한 서울대 단기선교 사역은 이제 캠퍼스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 선교와 민족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국내 각 지역으로 나아가 이 땅을 밝으며 증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선교는 태국을 필두로 해서 일본, 대만, 중국,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는 불교와 공산권과 이슬람의 아성인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부흥의 불길이 이 아시아에서 새롭게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로 증거되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드온과 같은 강한 복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캠퍼스와 이 땅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로 행진해 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대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해외 선교
태국팀
7.1-7.9 참가비 60만원
문의: 박근수 교수(880-8381)
카자흐스탄팀
7.18-7.28 참가비 60만원
문의: 주우진 교수(880-6947)
캄보디아팀
7.21-7.30 참가비 60만원
문의: 홍종인 교수(880-6682)
국내 선교
서울대학교회팀(국제전도특별팀)
6.25-29 참가비 3만5천원
-- 단대 및 과별팀 구성 --
문의: 권도경 간사 (011-9045-0095)
주관: 서울대 단기선교팀 & 서울대학교회

원호택 은퇴 교수와의 인터뷰



1958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졸업
1958-1965 육군 의무부대 임상심리학 장교 근무
1967-1970 육군인간 관계개선연구위원회 연구원

1970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석사
1971.8-1975.8 경희대 의과대학 임상심리학 조교수
1975.9-1981 한양대 의과대학 임상심리학 부교수
1981 고려대 대학원 심리학전공 박사
1982.1-2000.8 서울대 사회과학대 심리학과 교수
2000.8 기독교상담사 공동대표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역임
한국대학상담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학 학성생활연구소 책임
기독교윤리실천 본부실행위원 역임

작년 8월 심리학과교수를 은퇴하고 현재는 기독교 윤리실천의 기독교상담사 공동대표로 일하고 계신 원호택교수를 만났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인생 여정과 학문, 신앙 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함경도 풍산군 능기면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중학교 들어 갈 때까지 우리 집이 동네에서 예배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인도한 부흥사경회를 통해 감동을 많이 받고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1954년에 사대 교육학과를 들어갔는데 과학으로서의 교육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교육학적인 입장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신학교는 관심에서 멀어지고 교향으로 들어가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군대에 입대했을 때 임상심리 장교로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임상심리는 개척단계에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1년간 복무 후 5.16이 일어나면서 정신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이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최초의 경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교육학을 계속 공부했을 것입니다. 대학 때와 군대에 있을 때는 당시 교회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비판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할 즈음에 군의 명령으로 미국 윌트리트 병영으로 견학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견학교육을 다녀오면 군대 생활을 2년 더 해야 자격을 주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견학교육을 갔는데 그곳에서 임상심리가 우리나라에도 시도해 볼만한 새로운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3년에 돌아와 64년부터 경북대 의과대에서 강의의 활하게 되었습니다. 미개척 분야여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임상심리학을 더 본업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7년 상경하면서 육군연구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석사를 마치고 71.8월부터 경희대 의과대에서 교수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심리치료분야를 배우면서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년부터 한양대에서 교수직을 하면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평가, 진단연구에 힘쓰고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서울대 심리학과와 요청으로 82년

부터 심리학과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80년대는 우리대학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가 대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과학생이 기독교들의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요청해서 서울의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며 신앙적으로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세미나도 함께 참석하고 식사도 함께 하며 그들에게 기독교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농활을 함께 가면 동네 어른들이 칭찬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츰 사상적으로 막시즘으로 흘러가는 학생들을 보며 어떻게 지도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84년부터 서울지도교수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의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85년부터 복음주의의 서클이 좌경화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수들이 복음주의 학생들에게 사회참여의 복음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정신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을 대학 안에서 일으키자는 동기를 가지고 몇 교수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바른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를 1년 동안 했고 여기서 기독교윤리실천이 태동되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기독교윤리실천의 강령을 만들고 86년 11월에 기독교윤리실천이 발족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윤리실천에는 대학 교수, 일반인(장기래, 서영훈 등), 중고등학교 교사, 전문인들이 연결되었고 이것은 복음서클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로 저를 부르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의 발랄함과 의기양양함이 4월에는 까만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무기력증입니다. 이런 증상의 60% 정도는 할 일은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죽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학교 공부도 엉망이 되니 4월 중간고사 기간에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또 약 30% 학생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데서 이런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서울에 오면서 이런 일을 더 겪습니다. 3월에는 태대학 동기, 선후배, 이성친구를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가 4월중 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학생은 고독과 무기력, 자괴적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보다 훨씬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학생들이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무기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얼마의 학생은 과와 전공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기독교학생들이 학교에서 건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본업인 학문과 공부를 뒤로하고 공동체활동에만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한 구심점을 형성하여 더 깊이 연합하길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져 활동하기보다는 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임 때 부흥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하시 예정입니까?

기독교상담소에서 상담을 주로 하면서 인터넷 임상심리 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10여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 교수님들을 모셔 <인터넷 임상 상담 대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임상 상담을 일반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랫 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 전영심 기자)

그 동안 많은 상담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나는 상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 분이 저와 5-6년 상담을 지속하면서 중세가 많이 호전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간의 화평한 관계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경계선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서울대 자퇴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늘 바쁜 부모 밑에서 형과 둘이서 외롭게 지낸 이 학생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약물을 줄이게 되고 무기력한 생활에 활기를 찾아 회복을 하여 다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한 후에는 건강하게 되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담의 목표는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져서 사회에서 잘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4월이 되면 무기력감과 우울 증을 느끼는 "일사병"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3월의 발랄함과 의기양양함이 4월에는 까만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무기력증입니다. 이런 증상의 60% 정도는 할 일은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죽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학교 공부도 엉망이 되니 4월 중간고사 기간에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또 약 30% 학생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데서 이런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서울에 오면서 이런 일을 더 겪습니다. 3월에는 태대학 동기, 선후배, 이성친구를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가 4월중 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학생은 고독과 무기력, 자괴적임을 느끼게 됩니다. 또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보다 훨씬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학생들이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무기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얼마의 학생은 과와 전공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기독교학생들이 학교에서 건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본업인 학문과 공부를 뒤로하고 공동체활동에만 빠져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한 구심점을 형성하여 더 깊이 연합하길 바랍니다. 뿔뿔이 흩어져 활동하기보다는 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임 때 부흥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하시 예정입니까?

기독교상담소에서 상담을 주로 하면서 인터넷 임상심리 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10여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해서 여러 교수님들을 모셔 <인터넷 임상 상담 대학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임상 상담을 일반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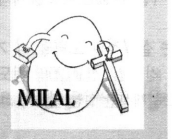
오랫 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 전영심 기자)

그 동안 많은 상담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나는 상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밀알 선교회 소개

서울대학교 밀알 선교단 (이하 서울대 밀알)은 한국밀알선교단 학원 사역부 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동아리입니다. "장애인 선교, 봉사, 계몽"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대 기독교대학생 연합수련회인 '밀알 21' 과 서울·경기 지역 대학 밀알 연합집회를 통해 '밀알'로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밀알선교단(1979년 설립) 본부에서 주최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캠프'와 '전국 장애인 복음화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계몽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밀알 선교단은 이 땅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밀알선교단에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월요모임에서 장애인 식사봉사를 하고 있으며, 시차 장애인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밀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화 교실을 열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4월 20일)에는 '장애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내기들을 위한 '밀알 새내기 교양학교'를 개설함으로 장애인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고양시키고, 재학생들을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성경공부('성경과 장애인')와 제자 훈련 ('영적 전쟁', '구원' 등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밀알 21' (2000년 6월 27-30)에 참석하여 장애인 선교에 대한 꿈(VISION)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밀알의 밤'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공부, 장애인 복지 세미나, 재가 장애인 후원 사역 등을 실시 하며, 또한 학원사역부 주최로 열리는 전국 대학생 연합수련회인 '밀알 21' 과 서울·경기 지역 대학 밀알 연합집회를 통해 '밀알'로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밀알선교단(1979년 설립) 본부에서 주최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캠프'와 '전국 장애인 복음화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봉사와 계몽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밀알 선교단은 이 땅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밀알선교단에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월요모임에서 장애인 식사봉사를 하고 있으며, 시차 장애인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밀알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화 교실을 열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4월 20일)에는 '장애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내기들을 위한 '밀알 새내기 교양학교'를 개설함으로 장애인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고양시키고, 재학생들을 위해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성경공부('성경과 장애인')와 제자 훈련 ('영적 전쟁', '구원' 등이)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밀알 21' (2000년 6월 27-30)에 참석하여 장애인 선교에 대한 꿈(VISION)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밀알의 밤'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대 기독교인 모임 소개

저희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사회기연) <www.freechal.com/sschrist> 이번 학기에 매주 목요일 12시에 규장각 앞 잔디밭에 모여서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사회대에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이 기독교인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1 기독교도 때부터 신실한 신앙생활을 많이 보내주셨고 개강예배때도 50명 이상의 지체가 모였습니다. 주로 과와 학회 등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단대 분위기 상 과거 기독교인 모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리, 언론정보, 인류, 지리학과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이 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던 다음으로 과별 모임을 소개합니다. (사회기연대표 사회외 이광훈)

사회학과 '작은자' <www.freechal.com/schristian> 사회학과 기독교모임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해에 모임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우리 멋진 새대기를 덕분에(?) 다시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매주 월요일마다 8:30분 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전에 주에 미리 찬양 준비와 책 나눔 준비를 할 지체를 정해놓습니다. 우선 소이먼 함께 찬양하고 삶 나눔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깨달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책 나눔 시간에는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는 앞으로 살게 될 일주일동안 계속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매주 정기적인 사회학과 정기모임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생활 속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며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가끔씩 날씨가 좋은 날은 야외로도 갑니다. 학교의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사진도 찍고 함께 영화도 보러 갑니다. 조만간 MT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외 김민아)

정치학과 '정기모' <www.freechal.com/polinjesus> 저희 정치학과 기독교인 모임은 97년도까지 있다가 없어지고 난 후 올해 다시 생겼답니다.지난 3월 30일에 역사적인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 저희 정기모 ~ !!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16층 107호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묵상과 찬양, 나눔, 중보 기도의 순서로 진행하다가...요즈음에는 교제를 정해서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C. S. Lewis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라는 책을 가지고 만나고 있지요. 아주 은은스럽게 말이죠. 함께 하는 지체를 모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가운데 97학년 선배님 세분이 연륜으로 저학년들을 이끄시고 99학년 3분, 00학년 1분, 01 학년 5분 정도가 꾸준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출발한

'장애인 그리고 서울대'

박성철 간사

얼마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교통 사고로 인해 하반신 장애를 가지게 된 단스기수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지체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TV 속에 비쳐지는 한 장애인의 모습이 과연 이 땅의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 가 수에게는 그를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이 있고 많은 적은 커져않은 음반 수익도 있다. 개인의 불행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시인 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병실임로 인해 출연료도 받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이 땅의 장애인 중 그 가수와 같은 경우요(?)를 가지고 있는 이는 몇 명되지 않는다.

내가 한국 밀알 선교단 단원과 간사로 사역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밀알 사역을 하면 서 참으로 많은 장애인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 장애인의 현실은 최소한 삶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웠다. 재개발이 끝나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분침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전(?)해 가는 장애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던 것이다. 당시를 회상하면 '결망'이라는 단어가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땅의 장애인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는가?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다. 40만에서 45만 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인구에 대 해서 정확히 통계 수치를 없을 뿐더러 1년 예산의 30%이상을 국비비에 투자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채 2%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는 이제 겨우 '생활'을 이 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재활"은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오히려 정신적 절망감은 지금도 더 심하다. 당시에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절대 권력만 몰리나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만 되면 장애인 복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좀더 참자' '조금만 견디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달려왔지만 장애인은 민주화의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부의 편중으로 인한 빈곤감은 더욱 심화되었고 정부가 내세웠던 정미법 장애에 대한 허탈감은 깊어지고만 있다. 그리고 여 전히 변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는 새로 운 문제점으로 대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의 계획과 기독교인 여러분의 중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정희00 김창경)

사회복지 '빛과 소금' <freechal.com/saltlights> 사회복지학과 기독교인 모임 '빛과 소금'은 92학년 선배님때부터 생겼습니다. 저희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 일원이구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은 15~20명 정도예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자면, 먼저 화요일에 점심 모임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아침 쿠키 모임을 하구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 10만마다 두레

관 303호에서 영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임은 물음에서 정답이라는 과제 가 인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예배와 생일축하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00 오현호)

외교학과 '낯은자' <www.freechal.com/interchrist> 국제관계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외교'는 자칫 교만의 길로 믿음의 지체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학과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진리에 믿음을 간직하면서, 이 세계를 다시 주님께 드리기 위한 비전을 모아가기 위해, 그리고 겸손히 세계를 섬기기 위해 '낯은자'로서 모였지요. 현재 '낯은자모임'은 밀알이 땅에 뿌려져 이제 자라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월요일 정오에 식사교제 중심을 모임을 이뤄지고 있구요. 5월 중순부터 성경말씀과 삶으로의 적용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는 낯은자모임에 대한 소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낯은자모임은 과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전함으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외교외 오현철)

경제학부 'deca' <www.freechal.com/snudeca> 경제학부 기독교인 모임의 역사는 10년이 훨씬 더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저희는 일주일에 두번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저녁 6시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구요. 화요일 점심마다 휴미대에서 점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시간에는 찬양을 하고 9-4가지의 기도제목과 놓고 기도한 다음에(지체 중보, 축기도, 과거적인 모임을 위한 기도, 태산자 기도 등등)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의 핵심'을 고취한 선배님들의 인도로 공부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매 주 참석 인원은 4~5명 정도구요. 점심모임 예는 그냥 ~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얘기하면서 교제합니다. 부활절 주간에는 과 신입생들에게 달걀을 나눠줬구요.4월 말에는 버들골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먹었습니다. 올해 모임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학회를 비롯한 다른 모임 시간과 많이 겹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2학기 때에는 모임 요일과 시간이 잘 조정 되었으면 좋겠구요. 전 개인적으로 저희 과기독교 모임이 경제학부 기독교인 안에 친밀한 교제를 나

뒤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장애인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구제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교회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저 1년에 한두번 찾아가서 식료품과 의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날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설교하지만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를 꺼려하고 장애인들이 평日的 삶을 향상하기보다는 교회 건물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기심은 '믿음이 없으면'이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아주지 않는 모습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물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선교에 있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되어 전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내가 서울대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각하다. 지 난 2년간 서울대 밀알 선교단을 지도하면서 많은 서울대학생들을 만났다. 그런데 서울대학생들이 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과외와 동아리도, 성적 등 서울대 학생들의 공통된 주제는 '나' 혹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웃',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출세 를 향해 달려가는 서울대학생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다. 아마도 10년 후면 그때 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냐. 그리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하지 않을까?

만약 지금 서울대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울대인'이 왜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 이익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걱정은 훨씬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한없이 이어지는 '서울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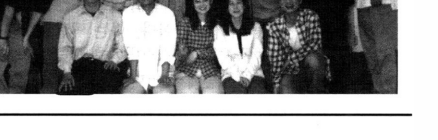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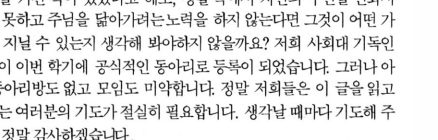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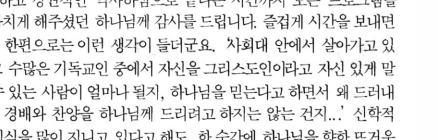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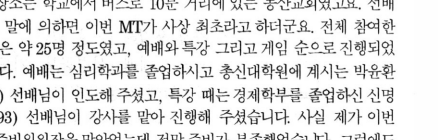
복음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공의로 왜곡된 구조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과 내면적 성찰로 인해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영향을 미친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었고 그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다. 이제 그 바울의 역할을 우리 서울대인들이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늘 수 있고, 힘들어 하는 지체들을 챙겨주고 세워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과 기독교인 모임에서의 기도와 우리의 과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경제학부의 한 영혼 헌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제00 김주현)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 MT를 다녀와서

이태우 (삼리외)

지난 5월 11일, 12일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에서 MT를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학교에서 바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산교회였고요.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MT가 사상 최초라고 하더군요. 전체 참여한 인원은 약 25명 정도였고, 예배와 특강 그리고 게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배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원에 계신 박은환(92) 선배님이 인도해 주셨고, 특강 때는 경제학부를 졸업하신 신명철(93) 선배님이 강사를 맡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MT준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정말 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치게 해주었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회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드러나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지는 않는 것인지... 신학적 인 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도, 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성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해도,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희 사회대 기독교인 연합이 이번 학교에 공식적인 동아리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아직 동아리방도 없고 모임도 미약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생각난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 집

실문을 통해 본 서울대 기독교 학생의 활동

박훈 (지리학과95)

기독교 학생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독교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지는 서울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독교 학생의 현위치와 방향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한다.

1. 서울대 기독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기독교인 64명)

항 목	평균	순위
종교 활동 1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찬양 모임)	1.39	1
종교 활동 2 (전도, 해외 단기 선교)	2.88	3
사회 봉사 활동 (장애인 돌봄, 공부방 교사, 소외 계층 봉사 등)	3.56	4
사회 참여 활동 (노동, 여성, 환경, 교육 문제 등)	4.27	5
자기 개발 (전공 공부, 각종 시험 준비 등)	2.31	2

2. 서울대 기독교 학생이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기독교인 64명)

항 목	평균	순위
종교 활동 1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찬양 모임)	1.56	1
종교 활동 2 (전도, 해외 단기 선교)	3.00	3
사회 봉사 활동 (장애인 돌봄, 공부방 교사, 소외 계층 봉사 등)	2.92	2
사회 참여 활동 (노동, 여성, 환경, 교육 문제 등)	3.84	5
자기 개발 (전공 공부, 각종 시험 준비 등)	3.42	4

3. 서울대 기독교 학생이 많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비기독교인 99명)

항 목	평균	순위
종교 활동 1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찬양 모임)	1.44	1
종교 활동 2 (전도, 해외 단기 선교 활동)	2.41	2
사회 봉사 활동 (장애인 돌봄, 공부방 교사, 소외 계층 봉사 등)	3.55	4
사회 참여 활동 (노동, 여성, 환경, 교육 문제 등)	4.20	5
자기 개발 (전공 공부, 각종 시험 준비 등)	2.85	3

4. 서울대 기독교 학생이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비기독교인 99명)

항 목	평균	순위
종교 활동 1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찬양 모임)	2.23	2
종교 활동 2 (전도, 해외 단기 선교 활동)	3.57	4
사회 봉사 활동 (장애인 돌봄, 공부방 교사, 소외 계층 봉사 등)	1.91	1
사회 참여 활동 (노동, 여성, 환경, 교육 문제 등)	2.71	3
자기 개발 (전공 공부, 각종 시험 준비 등)	3.79	5

이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독교 학생들은 종교 활동 1(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찬양 모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활동들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기독교 학생들은 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도 적고 당위도 느끼지 못한다.

크리스도인의 비전

김지혁(철학과 석사1)

“형,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인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 얼마 전 후배한테서 들은 이야기이다. 사뭇 진지하였다. 대학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개성이 존중받으면서 공존하는 사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대로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자기 개발 즉, 전공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교 단계에 헌신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파하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위해서 소위 종교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사회참여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세가지 답변 모두가 당연히 다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지는

비중(weight)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실제로 대학생활에 있어서 학업, 넓게 보면 자기개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모두의 후배의 말처럼 기독교인의 경우, 자기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는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정당화 가능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단체의 간사로 또는 시민단체나 참여연대 간사로 쓰시지 않고 서울대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나의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이이다. 우리는 현재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이 더 탁월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준비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소명을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전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과 사회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기독교 학생들은 자기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으면서도 자기 개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종교 활동 2(전도, 해외, 단기 선교), 사회 봉사 활동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볼 때 기독교인에 비해 비기독교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비기독교인들은 사회 봉사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들이 사회 봉사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비기독교인도 종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사회 참여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길 원한다.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전도, 선교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개발에 대한 부정적 생각보다는 덜하다.

비기독교인은 기독교 학생들이 전도와 단기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의 인식과 다르다.

비기독교인은 자기 개발이 가장 당위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5. 비기독교인이 느끼는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독교 학생의 대인 전도가 기독교를 강요한다는 것이고(50명 이상), 둘째는 기독교 학생들이 배타적, 독선적,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30명 정도)는 것이다. 세째는 기독교 학생들의 사회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10명 정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다.

6. 기독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회 봉사 활동(25명 정도), 전도 및 선교(20명 정도), 자기 개발(10명 정도), 성경 공부(10명 정도)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표로 제시한 설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7. 존경하는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답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국내인으로 문익환 목사와 국외인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의 기독교 학생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의사 소통이 적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기독교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교리 강요'로 번하고, 기독교 학생들의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의 배타성, 독선, 폐쇄성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존경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기독교 학생들의 대답지에서 다섯 명 이상의 존경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면(순위에 든 기독교인의 이름은 대부분 비기독교인의 설문지에 있었다) 기독교 학생들에게 성경 속의 인물 이외에 삶의 귀감으로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경향을 보여주고, 이것은 학교, 학과, 사회 학생들의 활동이 적은 기독교 학생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단지 기독교 학생들의 폐쇄성과 관련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주의, 실력주의 풍조 속에 학생회, 학회,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만큼 기독교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 적고, 그것이 기독교 학생들을 더 분리,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들이 학과·학부 구성원과 유리된 삶을 사는 것은 분명 바람직할 일이 아니고 기독교 학생들이 원하는 '복음의 진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개교회와 각종 선교단체, 학과 기독교 모임 등이 기독교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으로서의 우리의 비전을 발견해야하고, 또 공부하는 것과 사회 참여하는 것이 무관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보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각기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양대로, 모두 전공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의 색갈도 다르다. 인체의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서로 다른 은사와 사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개인은 모든 종류의 사역에 다 참여해서는 안되고, 참여하려고 해서도 안되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그분의 통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크리스찬 학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대에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본다면, 나는 누구나 다 자기 전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참여,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대로 사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 대학생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특 집

이제 그만 '핵심'을 벗어나서...

조민수(전기공학부 97)

현대인들은 언제나 '핵심만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네 바쁜 삶 가운데서, 시험철에는 '핵심' 정리를 찾고, 배울 때도 '핵심' 서적을 사서보고, 먹을 때도 '핵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제는 사람들까지도 '핵심'적인 인물만을 사귀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마저도 그렇게 '핵심만을' 알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효과적으로 단순화되고, 정형화되어 왔으며, 구호화 되어 왔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속에, 많은 사람들이 대하고 있는 뒷장안 되는 전도적 소책자 속에...

단순하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그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복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주지 않는가? 하지만, 안타까운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복음'의 핵심이 진정한 '복음'을 제한하고, 오히려 왜곡되는 현실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 단순화가 야기하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못하다는 말이다.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사회적 구원'을 도모시킨 '개인의 구원'의 문제 속에 가두어버리게 되었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기는 쉬운 것 같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균형 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수많은 말씀 중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꼭 집어낼 수 있을까? 필자는 '복음'에서 중요한 문제는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평행대위에 올라간 제조선수처럼, 교회는 총체적인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였듯이 그 평행대의 좌우가 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배놓을 수 없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주류 한국교회는 기형적으로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회적 복음'의 부족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얼마전 교회세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졌을 때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사회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필요이상으로 보

수적이고, 교회의 이득과 교리적인 문제에 관련된 일에만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인경건 생활의 우선'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복음'의 사회적 측면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네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야만 다른 것들을 행할 수 있다.'면서 우선 순위와 단계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자기자신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체념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는 사회에 대해 생각할 틈을 별로 주지 않는다. 의도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조하건대, 개인의 문제는 개인에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가 핵심이며, 이는 '구조'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경건 생활의 우선'으로서 올바른 신앙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크나큰 오산이다.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반성정적이지까지 하다(Ph.22-24). 우리가 사회를 통한 복음의 역학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총체적인 복음을 강조했던 '개혁주의 신앙'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몇 장의 전도지에 담겨진 나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게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와 더불어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테마는 부족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총체적인 성경에 대한 안목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주의 신앙의 차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때다.

"언제까지 '핵심'에 갇혀 살 것인가? 그리고, 진정 그것이 '핵심'인가?"

이번 설문지 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기독교인으로는 늦봄 문익환 목사가, 외국의 기독교인으로는 마틴 루터 킹이 1위를 차지하였다. 문익환 목사와 마틴 루터 킹의 공통점은 두분 모두 성직자인 목사이 동시에 투철한 사회 운동가였다는 점일 것이다. 두분이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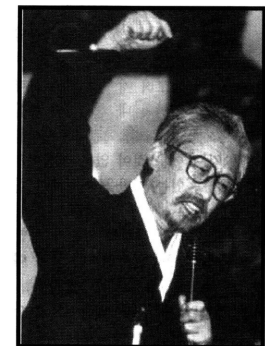
학생들이 바라보는 존경할만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기 희생적이고 사회 헌신적인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늦봄 문익환 목사와 마틴 루터 킹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늦봄 문익환 목사

늦봄 문익환 목사의 생애는, 목사로서의 삶과 민주화와 통일 운동가로서의 삶으로 집약되어 있다. 늦봄 문익환 목사는 1918년 6월1일 만주 북간도 명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5세인 1932년, 숭실중학교 재학 중 신사참배 거부로 중퇴하게 된다. 1938년 동맹에 있는 일본 신학교 입학하였고, 1943년에는 학병을 거부하여 만주 봉천신학교로 옮기게 되고 그해 만보산 한인교회 전도사로 시무하게 된다. 1947년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을지교회 전도사로 시무한다. 1954년 프린스턴신학교 신학석사학위 받고 귀국 후 1955 ~ 70년까지 한국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구약학 강의와 한민교회 목사로서 시무한다.

문익환 목사는 1976년 '31민주국선언' 사건으로 수감, 1978년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여 재수감, 1980년 "내란예비음모죄"로 투옥, 1983년 "고난받는 사람을 위한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취임,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의장, 1985년 5.3 인천항쟁 사건으로 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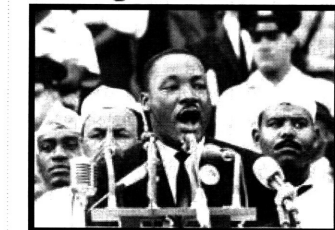
1987년 부정선거 항의 단식, 1989년 "전 국민적민주운동연합" 상임고문, 1989년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방북 김일성주석과 두차례 회담하여 통일 3단계 방안협의 합의, 1989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겠다는 위협에도 귀국하여 구속, 1991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위



마틴 루터 킹 목사

마침내 자유하도다! 정경하신 하나님, 감사하옵니다. 우리가 마침내 감사하도다! - 연설문 중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테러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투쟁을 주장한 인권운동가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29년 1월 15일, 아틀랜타 오번가 501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4년 모어하우스 대학 입학하였고, 1948년 애버닝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다. 1954년 앨라배마주 맥스데 교회 목사 취임한다.1955년 로사 파크스 부인 흑백분리 법을 위반죄로 체포되었고 1955년 몽고메리진보연합(Montgomery Improvement Association) 회장으로 선출되어, 버스의 흑인 차별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1956년 KKK단에 의해 자택 폭파라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1956년 흑인 차별 보이콧 금지법을 위반죄로 기소되기도 하지만, 1956년 연방최고법원이 버스 내 흑백분리법을 위헌선언으로 인해 1956년 12월

Talking about It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장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있는 일이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 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와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마라고 실패를 주셨다.

살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맘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 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개인홈페이지인 <http://my.dreamwiz.com/mail-coalm/index1.html>와 '인물로 읽는 세계사 11 KING' 낸시슈어, 김기영 옮김, 대원출판사, 1993 참고